

중·고교 시험 서·논술형 늘리고 AI 채점 도입

정답찾기 아닌 사고력 중시 평가로

서울교육청, 학생평가 내실화
학교 맞춤형 컨설팅 확대하고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정답을 고르는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 과정과 성장을 살피는 평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채점 지원 도입 등을 담은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정답 확인을 넘어 학생의 사고력과 배움의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평가 ▲미래형 평가체제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성취평가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 추진 로드맵〉

/서울시교육청

구분	1단계(2025년)	2단계(2026년)	3단계(2027년)
	시범 운영(66교)	시범 운영 확대(120교)	전체 학교 확산
주요 내용	AI 자동 채점시스템 개발· AI 학습용 채점데이터 구축	AI 자동채점 시스템 고도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속	서비스 상용화·시스템 고도화
기	◆서·논술형평가 플랫폼 구축 ◆AI 채점·피드백 모델 개발	◆AI 자동채점 모델 기능 개선 -손글씨 인식 기능 등	모니터링·기능 개선
관련 사업	◆AI 논술형평가 실천학교 운영 ◆논술형평가 연수 모듈 개발	◆AI 논술형평가 실천학교 확대 ◆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AI 시스템 활용 전면 확대 ◆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지속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운영 확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자료 개발과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한다. 수행평가는 단발성 과제가 아닌 학습 전 과정을 살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논술형 평가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시스템 ‘채움AI’를 고도화하고,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지난해 66개교에서 2026년 1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고등학교 성취평가 모니

터링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평가 설계와 운영 과정의 신뢰성도 높인다.

교원 전문성 지원을 위해 학생평가지원단을 확대하고, 성취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중심의 연수를 강화한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해 성취평가 질 관리와 서·논술형 평가 지원, 교원 역량 강화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폐원위기 어린이집 786개소에 106억 투입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정

서울시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의 경영 컨설팅,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중심의 보육 안전망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원의 예산(시비)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동행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2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돌봄 기반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사업 첫해인 2024년 5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699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2023년 337개소에서 2025년 276개소로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지원 대상을 786개소로 늘리고 사업 내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대상은 정원충족률 70% 미만 이면서 시설 간 거리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 60% 미만이면서 정원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이다. 폐원 시 지역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

올해는 위기도 평가를 도입해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컨설팅이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새롭게 실시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도 우선 지원한다.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1세반 월 51만5000원, 2세반 월 42만6000원, 3세반 월 165만원을 지원하며,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영아반 2개 반 이상에서 1개 반 이상으로 완화했다.

환경개선비는 지난해 40개소에서 올해 51개소로 늘어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해 2000만~40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창업 전주기 맞춤 지원 늘린다

혁신 스타트업 집중 육성

고양시가 혁신 창업기업 발굴에서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선순환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창업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과 투자 연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양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투자자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발굴·육성·성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창업지원 운영 방향은 혁신 스타트

업 집중 육성과 창업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혁신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창업오디션 고양 IR데이’를 개최하고,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28청춘창업소와 한국항공대,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해 지역 창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한층 촘촘해진다. 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제품 개발과 생산, 판로 개척,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시민 참여형 판로 지원 사업인 ‘고양 스타트업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해 시장 진입 기회도 확대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국가장학금 5조 확대… 제도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 맞춤형 국장 지원 기본계획
동일대학 재입학시 수혜 제한 완화

교육부가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규모를 5조1161억원으로 늘리고, 동일대학 재입학 시 수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우수 장학 확대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다.

내년도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4조 3670억원, 근로장학금 5738억원, 우수 장학금 578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979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원 등 총 5조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5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은 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

학할 경우 학교 학제 기준 한도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인별 한도인 8회 범위 안에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인재 지원도 확대된다.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은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와 체재비 지원 한도는 연 6만달러에서 7만달러로 상향된다.

근로장학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이 16만1000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단가가 현실화된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새빛신문고’, 44개 동 집중 홍보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를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4개 동을

순회하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공무원이 각 동의 통장회의를 방문해 새빛신문고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실제 민원 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통장들의 질의응답 시

간도 마련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9일 세류3동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모든 44개 동을 방문할 계획이다.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는 20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베테랑 팀장들이 매주 수요일 각 구청을 찾아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원시만의 민원 상담 서비스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평가
▲영국도 이스라엘 내각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결정에 비난 성명 /사진 뉴시스

▲“가자 시티 수도공급 재개에도 극심한 물부족 계속”
▲美, 방글라데시와 무역 합의…상호 관세 19%, 의류는 0%

▲엡스타머, 엡스타인 여파 사퇴 거부…내각 장관들 연대
▲호사가 유지 “자민당 압승 뒤 한일 관계, ‘다케시마의 날’이 관건”